

All is Well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2019 봄호

+

Vol. 40

www.jungtoh.org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의
희망과 비전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생명 살림등에 불 밝혀 나와 일체중생의
삶이 밝고 맑아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자재요양병원 **법당건립**을 위한 **한생명
살림등**을 밝힙니다. **의료사업**으로 불치의
질병예방과 삶의 질과 죽음의 여정이
안전하고 평화롭도록 돌보며 세세생생
고통이 없는 삶에 희망을 선물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공덕 무량등
모연**

당신이 불 밝힌 연등의 공양금은
간월보궁 및 삼천불 공경전 법당불사 건립기금에 쓰여지므로
진신사리를 모실 간월보궁 및 법당불사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연등 공양금

_한생명 살림등	5 만원
_법당 무량공덕 1년등	10 만원
_극락왕생 영가등	10 만원
_사업성취대등	30 만원
_대광명 대등	100 만원

울산 정토마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T. 052.255.8588 , 010.2926.8500
계좌 : 농협 351-0689-8746-03 정토마을

청주 정토마을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T. 043.298.2258
계좌 : 농협 351-0689-8746-03 정토마을

* 연등 접수시 위의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함께 발송된 연등 모연문에 내용을 적어
010-2926-8500 로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토마을

2019 봄호 + Vol. 40



1	여는 글	04
2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11
3	마하보디교육원	17
4	법화경 강설	28
5	고액기부 및 후원명단	34
6	정토마을 재단법인사무국	42
7	내가 함께하고 싶은 기도	54
8	청주 정토마을	56



행사일정 2019.04. ~ 2019.07.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 인도 라다크 의료봉사 현지답사 : 3/4~10
- 태화강 연등축제 : 4/26~28
- 부처님 오신 날 : 5/12~
- 캄롤린포체 초청 관음관정 가피기도 : 5/16
- 인도 라다크 의료봉사 : 7/8~17
- 제 4차 법화경 독송 천일기도 : 매월 넷째 일요일
- 백중기도 49일 : 입재. 6/28(양) ~ 회향. 8/15(양)
- 보궁 촛불기도 : 매월 음력 15일

마하보디 명상심리 대학원

- NGO 공존 시민무료 공개특강 : 5/9, 6/13
- 대학원 기말세미나 : 6/29
- 2019 어린이 명상캠프 : 8/1~2
- 어린이명상수업 : 3~6월. 3~4째주 화요일, 9~12월. 3~4째주 목요일(연 14회)

마하보디 교육원

- 솔마더(Soul mother) : 4/6~7, 4/27~28, 6/1~2, 6/29~30, 8/3~4
- 불교 논리학 기초반 : 4/15~17, 5/20~22, 6/17~19, 8/3~4
- 49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 8/17~22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 환우 생신 잔치 : 월 첫 수요일
- 개구리 공연단 : 월 2번째 또는 3번째 화요일
- 커피 바리스타 : 월 4번째 수요일
- 하하하 공연단 : 월 4번째 목요일
- 후아유 : 월 4번째 일요일

청주 정토마을

- 염불선 수행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PM 7시~일요일 PM 1시 회향

기해년 오월 정토보궁 연등 예찬

간월산중 자재병원 진신사리 정토보탑
 보사군생 예불휴(普使群生 禮不休)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예배가 쉬지 아니합니다.
 영산회상석가세존 여덟 말 오색 사리를 모신 간월산
 정토보탑이시여
 너른 땅과 높은 산천 중중무진 광명 길 잃은 중생
 에게 길이 되어주시니 그 공덕 무량하나이다.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역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기해년 오월 오색연등 밝히며...
 붓다의 탄생을 기뻐하며...
 당신의 삶 위에 푸르른 생명의 빛 연꽃 등에 담아
 불 밝혀 드립니다.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을 연등
 에 담아 사랑을 전합니다. 당신도 나를 향한 사랑
 연등에 담아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로 전하
 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사랑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를 빌며 밝은 빛 연등에 담아 밝혀드립니다.
 우리 선한 인연 변함없기를 소망하는 기원의 마음
 연등에 담아 밝힙니다.

나의 부모 가시는 길에 부디 한량없는 생명의 빛
 이 되라. 내가 밝히는 맑은 연등이여 나의 선망부
 모 인연 있는 육친들이 극락정토로 가는 길이 되라.

그대의 고뇌와 아픔들을 회복하고 치유되어지기를
 빌면서 당신기슴 한 가운데 연등 밝혀드립니다.
 그대의 삶이 오직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비는 이
 마음 담아 연등에 불 밝힙니다. 내가 밝힌 연꽃등
 이 그대 삶 위에 맑은 건강과 행운으로 항상 길상
 함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직 당신의 삶에 고통
 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며 연등에 불 밝혀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나의 삶에서 불행과 실패가 일어
 나지 않기를 빌며 연등에 불 밝혀서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당신께 받은 은혜로움과 사랑을 연등에
 담아 감사함을 전합니다. 당신의 노고와 헌신에
 고마움을 연등에 담아서 정토마을 하늘가에 올립
 니다.

일체 생명들이 평화롭기를 비는 나의 소망이 꺼지
 지 않기를 기원 드리며 연등을 밝혀옵니다.

오직 너의 행복을 위하는 이 마음 연등에 담아 너의 인생길에 밝혀 두노니 부디 행복하여 지이다. 내가 밝힌 연등으로 중생들의 삶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빕니다. 내가 밝힌 연등공양으로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에서 그대가 안전하기를 기원 합니다. 내가 밝힌 연등공양으로 풍요와 즐거운 삶을 선물로 당신께 드립니다. 그대가 원하는 착한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연등에 불 밝힙니다.

연꽃 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가 태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부처님 전에 연등 밝힙니다. 만나지는 인연마다 귀한 인연으로 만나지기를 소망하면서 연등에 불 밝힙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벗이여 그대를 위하여 정토마을 하늘가에 연등 밝혀 둡니다. 너의 행운과 번영을 비는 마음을 연등에 담아 밝혀주리니 하는 일마다 성취하여 지기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축복하며 연등에 불 밝혀 드리오니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고 무엇을 하든지 자비롭기를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위험과 위기로부터 실패와 좌절로부터 보호받기를 비는 이 마음 연등에 담아 불 밝혀드리오니 어디서 살든지 부디 평화롭고 안락하여라. 나의 가족과 나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번영합니다.

나의 이웃사랑은 강물같이 이어져 흐릅니다. 나의 삶이 흐르는 그 삶 위에 연등 밝혀 올립니다. 오늘 살아내는 나의 삶이 인류에 공헌하고 밝은 세상을 창조 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며 정토마을 하늘가에 붉은 연등 밝혀 시방 제불 전에 공양 올립니다.

인생은 너무나 시간은 본디 없는 것이라서 인연이 다하면 이 몸은 속절없이 이 세상 티끌 하나도 갖지 못하고 천지사방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평생이 무상하다 못해 무상하단 말조차도 붙을 수 없는 이 무상한 중생계의 하루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지면 이 세상 떠날 때 털 섬섬할까 생각해 보았더니, 남을 이익 되게 한 선업 밖엔 없겠구나 싶어집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성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력만이 아닌 진실 된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짐은 물론 인생 자체가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이라는 이름마저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리심은 궁극적으로 성불의 일체종지를 증득할 수 있는 인과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량한 세월 동안 깊은 사유를 행하신 모든 부처님들께 이 보리심의 유익함을 보시고 이것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아주 쉽게 궁극의 안락을 얻게 하셨습니다.

_달라이라마존자님의 강의 중에 발췌

정토마을 오월 하늘가에 연등 달면서 **능행 합장**

연기적 인과관계

검정콩 심으면 검정콩이 나고 단감나무를 심으면 단감이 나지요
씨 한 알에 열매는 아주 많아집니다.



심연 용정운 | 불교일러스트레이터, 카툰니스트

2012년 불교언론문화특별상 수상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으로 2011년 올해의 불서 우수상 수상
회향 : www.zentoon.com / 이미지보리 : www.ingebori.com

나의 민들레

세상을 떠난 랜디 포쉬(Randy Pausch) 교수는 건강문제로 대학을 떠나면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마지막 강의>에서 아주 감동적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가 행한 강의 내용 전부가 감동적이었지만, 난 그 중에서도 특히 '벽 이론(The Brick Walls Theory)'이 인상적이었다. 그가 언급한 '벽 이론'은 다음과 같다.

능행 (재)정토서관자재회 이사장



“But remember, the brick walls are there for a reason. The brick walls are not there to keep us out. The brick walls are there to give us a chance to show how badly we want something. Because the brick walls are there to stop the people who don't want it badly enough. They're there to stop the other people.”

“벽돌담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벽돌담은 우리를 안으로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벽돌담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지를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벽돌담은 그것을 아주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벽돌담은 다른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해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Remember brick walls let us show our dedication. They are there to separate us from the people who don't really want to achieve their childhood dreams. Don't bail. The best of the gold's at the bottom of barrels of crap.”

“벽돌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심전력을 보여주도록 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들을 어린 시절의 꿈을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기 위해 그곳에 존재합니다.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황금은 쓰레기더미의 가장 밑바닥에 존재합니다.”

결국 오래 전에 꾸었던 까마득한 높이의 성벽(城壁)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언젠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인 것이며, 이러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은 꿈을 달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일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들 망연자실(茫然自失)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연(憤然)히 앞장서 떨치고 일어나 벽을 타고 오르며 희망(希望)을 노래하는 자그만 담쟁이 잎 하나...

그런 담쟁이 잎들이 존재했기에 인류의 역사는 그나마 발전하는 방향으로 면면(綿綿)히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담쟁이

- 도종환詩 -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뼚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2014년 자재병원을 건립하고 폭 삶긴 풀처럼 땅을 베고 누워있을 때 나는 이 시를 만났다. 가만히 읽고 있노라니 병원을 완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 눌러버린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날 병원 앞 길목에 살고 있는 담쟁이를 만나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하

벽을 담쟁이 녀굴은 결코 뛰어 넘어려 하지 않고 천천히-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저 담쟁이는 벽에 살면서도 저렇게 푸른 잎을 피우구나 생각하니 담쟁이의 인육과 정진의 힘에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어린 담쟁이의 삶의 터전은 흙 한 톨도 없고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메마른 벽, 그 벽을 의지하여 푸른 잎을 피우며 서로 힘을 내고 있었다. 서로 함께 힘을 모아 의지하며 배려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벽을 넘는 모습에서 저도 또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토마을을 위해 기도하는 후원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담쟁이는 뿌리로 벽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벽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혼자만 살 길 찾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천개의 이파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한 발짝씩 나아가느라 저렇게 느리게 가면서도 어느 건널 수 없이 뜨거운 날에도 말없이 벽을 오르는 담쟁이처럼 나도 모든 일에서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하지 않으면서 삶의 벽을 오르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회색 벽의 환경을 푸른 잎으로 덮어 주는 담쟁이처럼 정토마을을 일구는 사람들과 함께 저도 질병으로 갈라진 마른 벽을 푸른 사랑으로 덮어 가 보려합니다. 담쟁이처럼 걸어 보려합니다.

정토마을을 사랑하는 그대와 함께 손잡고 벽을 넘어 저 푸른 초원으로 나가보려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때때로 벽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 그리고 권위로서 벽을 파괴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길, 타인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길, 길 없는 길에선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이 되어주길 그 길을 담을 넘는 담쟁이처럼 그렇게 걸어가 보려합니다.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흩씨되어 그대와 나는 지금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해년 오월 능행 합장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jajae-hospital.com

<p>입원문의 T. 052.255.8400</p>	<p>입원 시 준비 서류 및 물품</p>
<p>입원절차 입원상담-> 입원결정-> 병실결정-> 입원수속-> 입원</p>	<p>의사소견서 의료보호 1,2종은 의료급여 의뢰서(회송서)치참 (급여환자의 경우 반드시 필요)</p>
<p>유의사항 입원신청시 건강보험증과 현재 치료받고 있거나 기존에 치료 받았던 병원의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 CT 및 MRI등 의무기록사본, CD사본을 챙겨오셔야 합니다.</p>	<p>처방전 복용하시던 약 X-RAY, CT, MRI 사본 또는 결과지 병실생활에 필요한 물품 (세면도구, 양치대야, 각티슈, 물티슈, 수건, 로션, 실내화 등)</p>

전화 052-255-8400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야정길 216-39 팩스 052-255-8499

내 앞에 등장 한 자재(호스피스병동)
 건물 안에 들어선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함 기분이 든다 이 병동은 내가 느껴
 보지 못한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재
 요양병원이라 떠올랐다
 포는 인생에 마지막 스쳤다 참 편했
 아라 여기 다행히 내가 이곳을 왔다
 한것이 부끄러움 기쁘게 이브가 싶어
 지금까지 너무 절없이 살아 온것이 부끄러움
 뿐 앞으로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성심껏
 살겠습니다 아산 줄이고 자재요양병원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호스피스 병동 신승균 환자

내 앞에 등장 한 자재병원
 호스피스 병동 건물 안에 들어서니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 한 기분이 든다.
 이 병동은 내가 느껴보지 못한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재요양병원이구나 떠올랐다.
 여기는 인생에 마지막 스쳤다 가는 곳이라
 다행히 내가 이곳을 왔다 간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너무 절없이 살아 온 것이
 부끄러울 뿐 앞으로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성심껏 살겠습니다.
 이만 줄이고 자재요양병원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
다행히
내가 이곳에 왔다 간 것이...

신승균 호스피스병동 멋진 남자

이 글을 써주신 신승균님은 호스피스병동에 함께 머무르셨던 환자분입니다. 2018년 5월 15일 신승균님이 떠나신 날, 그분과 그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마하치유방송국에서 위 글을 낭송하였습니다. 늘 유쾌하시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법을 온 몸으로 알려주시던 멋진 남자 신승균님을 함께 추억하고 애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호스피스병동에서 신승균님과 함께 한 소중한 인연들 아름다운 목소리로 글을 낭송해주신 마하치유방송국 진행자 서진님, 임종기도를 통해 가시는 길을 밝혀주신 다운스님, 도우스님 이하 정토마을 승가공동체 스님들, 환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임종실에 머물며 마음을 돌봐주신 능인스님, 만남에서부터 이별의 여정까지 성심껏 돌보아주신 백은숙 가정의학과 부장님, 이경화 호스피스팀장님을 비롯한 간호사, 요양보호사, 향기로운 오일로 환자의 손과 발을 마사지해드리며 무료한 시간에 함께 동행해주신 요법강사 및 자원봉사자. 우리 모두 당신과 함께하여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도마을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따스한 빛이 되어 주고
 생명존중, 영적치유에 가치를 두어
 붓다의 무한한 자비를
 바탕으로한 조건없는 나눔!
 항상 실천하는 불교요양병원,
 불교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입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완치가 어려운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입니다.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신체, 정서, 사회, 영적인 돌봄
 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
 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
 인 돌봄(holistic care)입니다.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최우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문의사항에 대해
24시간 안내해드립니다.
☎ 052)255-8457

전문의료 서비스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양·한방 협진진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병동안내

- 1F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집중치료실
- 2F 요양병동, 마하치유방송실, 영적돌봄연구실
- 3F 요양병동, 한방요법실, 물리치료실, 영양실, 승가병실
- B1F 영상검사실, 약국, 바이룸, 자원봉사자실

입원안내

_완화의료대상자

기대여명이 6개월 전후로 예견된 말기암 환자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
암성통증 및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
주치의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을 추천 받은 환자

_입원절차



_의료 서비스

호스피스전문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다학제적 완화의료팀의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
통증완화 및 증상조절
다양한 예술통합 요법치료(미술/원예/마사지/다도요법 등)
전문적인 영적 돌봄 및 상담, 임종을 위한 불교전문 의식
이벤트 및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
퇴원 시 타 기관 안내 및 보건소 연결, 재가암환자 서비스 안내

누군가 나를 고통으로 상상하기 이전에 나는 오늘 무척 행복하다

호스피스 병동에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한다.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별들이 사라졌다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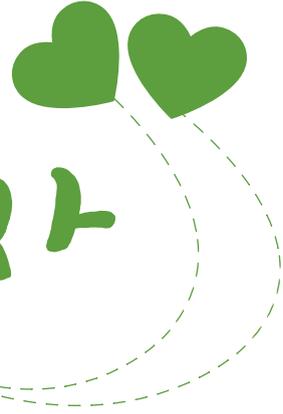
말기 암환자가 통증과 고통 안에서 침표를 찍고 방문하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다. 말기암 환자들은 진단 받은 후 육체적 치료에 몰입하다 보니 마음은 뒷전 이었다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닌다. 어찌 육체만 돌본다고 마음까지 치유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는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는 곳이다. 몸에 집중하느라 삶의 의미를 놓쳐 버린 상실 된 마음과 그동안 “왜 하필 나인가?”에 대한 분풀이도 이곳에서는 충분히 토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곳은 위기에 처한 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작가가 이런 글을 써 내려갔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충격을 받고 심한 슬픔과 분노에 사로 잡혔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영적 스승에게 조언을 청하자 스승이 말했다. “그것을 그렇게 큰일로 만들지 말아요.” 암에 거린 것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더 크게 확대시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다. 암은 자신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암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자 두려움과 싸우던 에너지가 생명력으로 바뀌어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한다.”

위 글을 읽고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토록 고통에만 중점을 두고 해결하려 했던 지난 시간에 대하여 깊이 사유 할 수 있었던 글이었다. 호스피스팀원들은 위기에 처한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안정감을 갖고 혼란스럽고 힘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학제팀으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돌봄가, 자원봉사자)은 전문성을 갖추고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과 마음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 좀 더 희망을 가져 보려하는 환자에게는 희망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려 노력한다. 이곳은 자신의 삶 자체를 인생수업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인생수업은 참으로 값지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문득 살아있는 나에게 답을 알렸다. 누군가 나를 고통으로 상상하기 이전에 나는 오늘 무척 행복하다. 우리 모두 주문처럼 매일 외워야 할 문장인 것 같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토마을은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끌어집니다.
환우들은 자원봉사자의 미소에 기운을 내고, 정토마을의 구석구석은 당신의 동참으로 밝아집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통해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봉사장소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활동문의

T. 052.255.8408(김은구 사회복지사)

모집내역

_시간단위 봉사

09:00-14:00, 13:00-17:00, 17:00-21:00

_일일 봉사

10:00-17:00(주간), 20:00~익일 05:00(야간)

_주간 봉사

주 1회

_장기 봉사

도움분야

비품관리, 병원실내외청소, 환우목욕, 방문객병원안내,
도서나눔, 환우수발라운딩, 환우들과 함께 산책,
치유방송지원봉사, 행정지원봉사, 화훼(정원수관리)

재능기부

임상기도, 임종돌봄(교육이수자가능),
집단.개인 공연(음악,악기, 춤 등), 아로마치료, 이.미용,
물리치료분야(카이로프랙틱, 온열치료, 갈바릭치료),
의사선생님 주말자원봉사(양.한방, 치과, 이비인후과)

48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을 마치고...

최인숙 48기 생사의 장 수료



마하보디교육원에서 올해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되는 호스피스교육을 받기 위해 진주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각자 개성이 강한 16명의 교육생들이 모였는데 이번 교육의 주제는 “생 멸 그 사이에 핀 꽃”이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철학적 의미와 불교적인 이해 등을 통해 나의 감정 밑바닥 아뢰야식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번뇌의 찌꺼기들을 털어내고, 나를 튼튼하게 바로 세우는 작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견해 등을 정립한 다음, 나의 죽음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살아서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많은 선배 봉사자님들과 스님들의 호텔식 같은 정성 어린 공양 준비와 많은 스태프들의 지원으로 무사히 교육을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 드리며 원장스님의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며, 나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얻게 되었다.

같이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길 바라고 다가올 여름에 교육받게 되는 49기 교육에 우리가 선배님들께 받은 사랑을 잘 회향할 수 있길 바라며 올 여름에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세요~

교육을 받으러 간 그곳은 봄소풍이었는데...

선봉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2기 수료



매일매일 뿌연 서울하늘의 미세먼지와 겨울의 마지막의 아쉬움을 시기 하듯 매섭게 몰아치는 여분의 추위를 뒤로 하고 남쪽으로 달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으로 향했다. 학인시절 능행스님께서 불교호스피스 병원 건립을 하시겠다고 운문사에 오셔서 홍보를 하시고, 많은 스님들이 마음을 모으던 그 시절의 회상이 내 앞을 지나가고 기대 이상으로 반듯하게 우뚝 자리잡은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의 전경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7년간의 외국생활을 하고 너무나 빨리 변해버리는 한국이라는 사회에 적응도 못한 채 지난 늦여름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나는 병원법당 소임을 맡았다. 소임을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마주하게 된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분의 마지막 처절함과 쓸쓸함을 바라보면서 난 가슴이 턱 하니 막히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어떤 마음과 말이 그분의 절망을 돌려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느껴온 모든 것을 동원해도 얻을 수 없는 그 해답에 난 죄스러웠다. 나의 무력함과 무능함에 좌절하고 그분들의 슬픔에 동화되어 한없는 우울함으로 퇴근 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날 이후 난 병원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꼭 받아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겼고 승려연수라는 형식을 빌려 호스피스교육에 동참했다.

2박 3일이라는 승려연수 교육과정으로의 호스피스교육, 사람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라는 과정이 어찌 그 짧은 시간으로 충분하겠는가? 수없는 반문도 하였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내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목숨이 끊어지는 임종기도의 순간에도 생의 집착을

놓지 못하고 간절하게 마지막까지 스님의 기도에 의지하여 삶의 동아줄을 부여잡는 사람들인데 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지만, 이번 교육의 인연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다. 이 호스피스교육은 내가 배워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소임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임을 깨달았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고통, 모든 이는 죽음에 이른다는 문제에 대하여 난 과연 어떻게 죽어갈 것이고, 수행자로서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배우는 것이 이 교육이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고구정녕하게 제시하신 그 최후의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 교육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불자의 수행으로서 이생에서의 마지막 수행으로서 그 회향의 순간을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하다. 인간의 삶에서 생노병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에서 불제자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고 정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그 동안 잊고 있었음을 반성했다.

우리 불자들, 아니 우리들 모두 잘 살고자 기도에 매달리지만 잘 죽는 것에는 기도의 마음을 내지 못한다. 모두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종교적 가치관과 관념들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것에 의지해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준비로써 이 교육은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교육이라고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다.

난 오늘도 겨울을 지나 또 다른 봄으로 죽을 날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제 9기 졸업식 후기

추상문
2018학년도 석사 졸업

정토마을은 나의 제2의 고향이다.

언제나 그리웠고 오고 싶었던 곳, 이곳에서 원장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과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졸업식을 하게 되니 말 그대로 감개무량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도 있었다. 이번 졸업식은 나에게 정말 특별함이 있었다. 구석구석 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던 이곳 정토마을은 진정 내 마음의 고향이다.

그 고향에서의 졸업식. 나에게 조금 늦은 감도 있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진정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음에 또다시 정토마을을 찾을 때에도 모든 분들과 기쁨을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졸업식에 세심하게 신경 써준 대학원 행정실직원들에게 특별한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또한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 정토마을과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정토 합장

김은구
2018학년도
임상상담전문가과정 졸업

가벼운 마음으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길목에 선 지금.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으신 친정어머니 손잡고 함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에서 보낸 시간들이 벌써 5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병원에서 자원봉사 관리를 하고 보호자와의 만남을 나누
면서 저 또한 보호자 입장이라 보호자들의 고충과 불편함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하였고, 우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불교 호스피스병원으로서 좋
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간이기에 사회복지사로
서의 책임과 질 높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성장 발전시키며 감사와 기쁨, 평화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능행 원장스님과 교수님, 정토
마을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윤정숙
2018학년도
생명교육전문가과정 졸업

자유롭고 싶었다. 그러나 나를 구속했다. 5년간의 토요일을 대학원에 묶었
다. 50년 넘게 익숙한 것과는 다른 무엇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때론
불편하기도 했다. 방향하던 마음은 점차 길을 찾아 갔고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임상상담전문가과정은 나의 껍질을 깨는 시간
이었고, 생명교육전문가과정은 나의 길을 찾는 기간이었다.

고귀한 씨앗을 뿌리신 능행 원장스님과 양분을 공급해 주신 교수님들, 그
리고 적절히 물을 뿌려준 교육원 식구들. 이 모두의 헌신으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또 나뭇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새 성
장해 있는 도반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었다.

스스로 구속하였지만 더 크게 자유로워짐에 행복하고, 공존으로 이어짐에
희망을 본다.

모든 것에, 모두에게 진심 감사하다.

MAHABODHI NEWS

MAHABODHI MEDITATION PSYCHOLOGY GRADUATE SCHOOL

2018학년도 대학원 세미나 모습

2018년 12월 22일, 대학원 종강과 함께 가을학기 기말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속속 도착하셔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기뻐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발표, 교수님들의 피드백으로 내내 열띤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며 뒤풀이 자리도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018년도 어린이명상수업 모습

2018년 12월 27일, 어린이 명상수업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생명교육 네트워크_NGO 공존과 함께 매년 어린이명상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랑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고학년반, 저학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료식에서 지도법사 도우스님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손수 장미꽃까지 선물하셨고, 파랑지역아동센터는 떡과 음료를 준비하여 파티 분위기가 더욱 물씬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명상수업은 계속됩니다.



대학원 불교사특강

2019년 2월 16일, 동계방학기간을 맞이하여 대학원에서 불교사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특강은 종교학 박사이자 금강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최종석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재학생 이외에도 졸업생 및 외부청강생들도 자리를 채워 배움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2019년 대학원 입학식, 졸업식

2019년 3월 2일, 마하보디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입학식과 졸업식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능행 원장스님 및 공동체 스님들과 티벳 스님들, 교수진, 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회, 초청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2019학년도 전기 입학생은 7명이고 2018학년도 졸업자는 석사 1명, 임상 상담전문가과정 4명, 생명교육전문가과정 1명이며 석사 학위기는 김영덕 위덕대학교 불교대학원장님이 직접 수여하셨습니다.



MAHABODHI NEWS

MAHABODI EDUCATION CENTER

솔마더(Soul mother) 수행의 현장

2018년 11월 4일, 3기 솔마더(Soul mother)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솔마더는 영적 치유 에너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1박 2일로 진행되었으며, 스님과 재가자 모두 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무료특강) 불교와 과학-생명, 불교와 과학의 관점에서

2018년 12월 4일~12월 6일, 마하보디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12월 무료특강으로 기획된 <불교와 과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계시 소남 초펠스님께서 강설하여 주셨으며, 통역에는 지덕스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생명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찰해 오고 있는데, 불교와 과학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탐구하는지를 사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료특강) 불교 논리학(딱셀)

2018년 12월 10일~12월 13일, 마하보디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무료 특강 <불교 논리학_딱셀> 강의가 있었습니다. 계시 나왕 온덴스님께서 강설하여 주셨으며, 통역에는 지덕스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대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논쟁하는 방식을 배움으로써 근원의 본질을 깨닫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디사트바 임상수행(호스피스)

2018년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반 학인 스님들(12명)과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동시에 마하보디교육원에서 '보디사트바 임상수행'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생사가 공존하는 현장에서 육바라밀을 실천 하고, 이론을 통합하는 훈련중심의 임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INFO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CPE센터

임상보디사트바(CPE) 교육

삶의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한
영적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임상보디사트바교육은 부처님의 법을 따라 자신을 성찰하고
지혜와 자비를 증장시켜 타인의 고통에 함께 머물수 있도록 전
문적인 돌봄을 훈련하는 영적돌봄가의 과정입니다.
영적돌봄가인 임상보디사트바의 역할로써 개인에게는 치유와
성장을, 관계에서는 상생을 이루는, 돌봄과 수행을 통한 깨달
음의 길로 나아가는 16주간의 여정입니다.



2019 여름학기 5월 18일(토) ~ 능인스님
5월 31일(금) ~ 도우스님

2019 가을학기 9월 중(일) ~ 능인스님
9월 중(금) ~ 도우스님

문의전화 : 010-7109-7600 도우스님, 010-4416-2635 능인스님

불교 임상기도 임종의식 집중수련

환자를 위한 기도훈련과 임종의식을 집중수련하여 영적돌봄
의 활용능력을 높입니다.

수련기간 : 2019.09.24(화) ~ 09.28.(토) ※4박5일(연 1회)

대 상 : 사부대중(선착순 40명)

교 육 비 : 58만원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불교 논리학 기초반

논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불교공부에 논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티벳불교 계시 하람빠 학위 받으신 스님
께서 지도하여 주십니다.



교육기간 : 2020년 3월 예정 ※ 연 1회

교육대상 : 사부대중(선착순 30명, 90%이상 출석 가능한 분)

교 육 비 : 무료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MAHABODI
EDUCATION
CENTER

솔마더(Soul mother) 수련생 모집

개인적 수행과 영적인 성장을 원할 때, 치유적 능력 및 상담가 자질을 향상하고자 할 때, 기도봉사를 하거나 계획하고 있을 때, 호스피스 돌봄에 활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현장에서 영적돌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련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2020년 4월 예정(총 8회/1박 2일/회당 15시간) ※ 연 1회
교육대상: 사부대중(선착순 30명)
교육비: 1안거-140만원 (수련복 별도) 2안거 이상-교육비 50% 감면
제출서류: 교육지원서, 증명사진 1매

나에게 솔마더(Soul mother)란?

공심으로 돌아가 온전한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받는 것이다.
 해탈, 열반이다.
 심신을 정화해 주는 치유의 빛이다.
 나의 본성을 찾아가는 징검다리이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자비심의 원천이다.



솔마더(Soul mother) 수련생 모집
 # 영적 치유 에너지 강화 훈련

- 내용** 위로부터 켜다 아디묵타, 차크라 디아나 훈련, 아난다 만달라 명상, 내 안에 모성활성과 훈련, 치유에너지와 심신통합(관상), 기도훈련, 몸 공명 명상, 객측뇌 권두엽 활성화 촉진 훈련.
- 대상** 사부대중 30명(선착순)
- 교육비** 1안거-연 140만원 (수련복 별도), 2안거-50% 감면(연 70만원)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교육을 통해 영적소통능력을 계발하여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영적돌봄기를 양성합니다.



교육기간: 2020년 3월 예정 ※2박3일(연 1회)
교육대상: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선착순 30명)
교육비: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제출서류: 교육지원서, 증명사진 1매

교육후기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다시 했습니다.
 수행적, 영적 측면에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죽음이 순간이 아닌 많은 과정과 준비 그리고 배려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이번 교육이 시작이고, 숙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과제를 얻고 가는 느낌입니다.
 [2019년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접수문의

T. 052)255-8522, 8524 F. 052)264-0209 M. 010-8848-8522
 E. 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교육원

INFO

MAHABODHI
MEDITATION
PSYCHOLOGY
GRADUATE
SCHOOL

신입생 정기모집 안내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현대심리학이 통합된 불교심리학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명상수행과 심리상담을 접목하여 관련분야의 학문적 체계를 연구, 응용,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천학문의 장입니다.

- * 불교사상을 현대심리치유에 적극 활용한다.
- * 불교사상을 현대심리치유에 적극 활용한다.
- * 불교임상현장과 연계된 창의적인 실천학문을 개발한다.
- * 독자적 자질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한 인재를 육성하여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교육과정 : 석사 과정(명상심리학 전공, 5학기)
 생명교육전문가 과정(4학기)
모집기간 : 매년 전기(3월 개강), 후기(9월 개강)
모집공고 : 홈페이지 <http://mahaedu.org> (2019년 후기모집 6월 중 공지)

교육후기

폭넓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강의라서 좋았습니다.(2015년 졸업생)
 해박한 지식과 재미있는 강의법 감사합니다.(2015년 졸업생)
 상담공부를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2015년 졸업생)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 다니다 보면 저절로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2016년 졸업생)
 실제 교육으로 이루어져서 더욱 좋았습니다.(2017년 졸업생)
 새로운 문제의식, 지적 호기심을 촉발해 주는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2018년 졸업생)
 새로운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주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2018년 신입생)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돌봄이 되어 좋았습니다.(2018년 재학생)
 삶의 지향적이고 실천의 장이다.(2018년 재학생)



접수문의

T. 052)255-8521, 8523 F. 052)264-0209 M. 010-4656-0180
 E. grad.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NGO 생명교육 네트워크 _공존
극단_연극하는 사람들
2019년도 연극단원 모집!**

NGO 생명교육 네트워크 공존 은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서 인류와 일체 생명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접수방법 : 전화(052-255-8521, 010-4656-0180)
극단주소 :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내(NGO 생명교육 네트워크 _ 공존)



**무료시민특강 since2017~
2019 치유와 성장의 힐링극장**

영화 매체를 통한 소통과 나눔을 통해 치유의 힘을 키우는 프로그램

- 1강.** 5.9(목) 18시 30분 ~ 20시
주제_ 소통(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하기) / 스토리 오브 어스(The Story Of Us, 1999. 미국)
- 2강.** 6.13(목) 19시 ~ 20시 30분
주제_ 상실(가장 아름다운 이별) / 굿&바이(Good & Bye, 2008. 일본)

접수방법 : 전화(선착순 / 무료)
강의장소 :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대강당

_장인규 강사
매체심리상담연구소장
한국심리협회 전문교수

교육후기

명상을 통한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2017년 가을 수강생)
명상을 할 때 자기 안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도 봐야 한다는 말씀에 큰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감사한 강의였습니다.(2017년 가을 수강생)
왜 걸림이 생기는지, 항상 참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참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2017년 가을 수강생)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가졌습니다.(2018년 봄 수강생)
자신을 좀더 깊이 보게 되고 바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됨.(2018년 봄 수강생)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의 행복임을 다시 확인했어요.(2018년 봄 수강생)
내적 성장을 위한 좋은 특강에 감사드립니다.(2018 가을 수강생)
생사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이곳, 행복하세요.(2018 가을 수강생)

묘법연화경 제1권

第八. 오백제자 수기품

서봉반산(瑞峰盤山)
스님

제 8. 오백제자 수기품

- 하근기 중생에게도 수기 내리는 부처님

첫째 주제 :

5백 이하한의 상수 부루나 존자 - 포교를 위해 순교의 길을 가다

1) 부루나는 설법제일

인연설법을 경청한 부루나 존자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뿔 듯이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수기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경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1.

“그 때 부루나미다라니자는 …… 《미증유》를 얻어 마음이 청정하고 뿔 듯이 기뻐하며, …… 한 쪽으로 물러나 부처님의 존안을 우러러 보되 눈을 잠시도 깜박이지 않고 생각하기를 「세존께서 매우 기특하시고 하시는 일이 또한 희유하시어, 세간의 여러 가지 중성을 따라 방편과 지견으로써 법을 설하시어 중생들이 집착하는 곳을 떠나게 해 주시니, 우리들은 그 부처님의 공덕을 말로 다 할 수가 없구나. 오직 부처님 세존만이 우리들의 깊은 마음 속 본래의 바라는 바를 아시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부처님은 부루나 존자에게 수기를 내리십니다. 과거로부터 부처님을 도와 정법 포교를 도우려고 애를 쓰다가 순교한 분이 바로 부루나富樓那 존자입니다. 법화경에서는 현재 석가세존의 큰 제자로 정법을 펼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였고, 미래 부처님의 회상에서도 역시 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수기하십니다. 또 세존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설법을 뛰어나게 잘한다고 칭찬하십니다. 경문을 합장하고 읽어볼까요!

8-2.

“여러 비구들아, 부루나는 또 과거의 일곱 부처님의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이었으며,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한 제일이고, 현겁賢劫 중 앞으로 올 여러 부처님의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한 제일이고, 현겁賢劫 중 앞으로 올 여러 부처님의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한 제일로

서, 부처님의 법을 다 받들어 가지고 도와 선설하며, 또 미래에도 한량없고 가없는 많은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가지고 도와 선설하고 아نوات다삼약삼보도에 이르게 하지마는,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항상 정진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보살의 도를 점점 구족하느니라. 그가 한량없는 아승지겁을 지나 이땅에서 아نوات다삼약삼보도를 얻으리니, 그 이름은 범명法明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 부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이렇게 수기하신 세존께서는 다시 계송으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8-3.

어리석은 중생들 소승법 즐겨	知衆樂小法으로
큰 지혜를 두려워할새	而畏於大智일새
이런 줄 미리 아는 여러 보살들	是故諸菩薩이
성문이나 연각으로 다시 되어서	作聲聞緣覺하사

8-4.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시키어	度脫無量衆하야
모두 다 그들이 성취케 하며	皆悉得成就하며
마음이 비록 게을러도	雖小欲懈怠라도
점점 닦아 부처를 이루게 하며	漸當令作佛하며

2) 안으로 보살을 숨기고 밖으로는 성문으로 행세하다

위의 계송에서 특히 안으로 보살임을 숨기고 밖으로 성문으로 행세하면서[內祕外現], 적은 것을 바라보고 생사에 윤회하는 듯 보이지만 속 뜻은 말세의 중생을 위해서 국토를 청정하게 하려는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8-5.

안으로는 보살행 갖추어 있고	內祕菩薩行하고
겉으로 성문이라 행세하면서	外現是聲聞이라
적은 것 희망하고 생사에 얽혔어도	少欲厭生死호대
그 실은 불국토를 청정케 하려는 뜻.	實自淨佛土하며

8-6.

법의 기쁨 선정락으로 음식을 삼아	法喜禪悅食하고
다시 다른 생각 전혀 없으며	更無餘食想하며
여인은 원래부터 있지 않으니	無有諸女人하고
한 가지 악한 길도 또한 없어라	亦無諸惡道하며

부루나 비구가 성불하여 미래의 범명法明 여래로 계시는 국토에서는 ‘법의 즐거움과 선정의 기쁨으로 음식을 삼는 세상’ 이랍니다. 이는 화엄경 식으로 말하면 청정한 수행을 하니 밥을 먹으면서도 선정의 즐거움으로 받

아들이고, 뒷간에서도 법의 기쁨이 가득하다는 뜻일 겁니다. 한 생각에 몰입한 상태에서는 다른 모든 것은 전혀 관심 밖일 수밖에요!!

3) 설법제일說法第一 부루나 존자의 행적

(1) 태어나는 가문에 따라 천민이 됨은 옳지 않다

바라문교도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교리에 따라 신분 제도를 고집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서는 불을 섬기고 있는 바라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는 가문에 따라서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는 가문에 따라서 천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의 행위를 맑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라문이요, 악행을 일삼는 것이 천민이다.”

이러한 신분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혁신적인 가르침으로 당시 사회적 신분은 낮으나 재물은 많이 가지고 있는 평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지요. 신분에 관계없이 재가불자로서 불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흔히 불교 경전에 장자長者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대개가 경제적 실권을 쥐고 있으나 사회적 신분이 평민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 포교를 위해 순교의 길을 가다

부루나존자는 본래 카필라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난 바라문의 아들이었지요. 그도 부처님과 같은 날에 태어났으며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루나의 아버지는 바로 정반왕의 국사國師였으므로 뛰어난 지혜가 있어 베다에 정통하였고 모든 학문에 박식한 가문에 태어났으므로, 바라문교에 출가하여 20세가 되던 해에 통달하지 않은 학문이 없었지요. 부루나의 이런 소문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는 무엇이든지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진실로 다 아는 사람은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듯 한다. 그러나 조금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해져 남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장님이 등불을 든 것과 같아 남의 앞을 밝혀주지만 제 갈 길은 모른다.”

이러한 소리를 들은 부루나는 부끄러움을 느껴 부처님께 참회하고 귀의하여 비구가 되었지요. 원래 아는 것이 많았으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깨달아 법을 설하는데 걸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설법제일說法第一이라 부르게 되었고, 부루나 존자는 서방의 수로나국으로 법을 전하러 가겠다고 부처님께 허락을 요청합니다.

“부루나야, 서방 수로나국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고 거칠다. 만약 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욕하면 어찌겠느냐?”

“세존이시여, 만약 수로나국 사람들이 면전에서 헐뜯고 욕하더라도 저는 고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착해서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로 나를 때리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수로나국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이시여, 수로나국 사람들이 비록 돌을 던지고 몽둥이질을 하지마는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 칼로 찌르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루나야, 만약 그들이 너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는 육신을 가벼이 여겨 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멀도하여 열반에 들 것인데 수로나국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데가 있어 나의 수고를 털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루나존자는 수로나국에 가서 500명의 재가신자를 얻고 500개의 승가람을 세웠고, 하지만 부루나 존자는 끝내 수로나국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경문에서는 계승으로 말합니다.

8-7.

위 없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	爲求無上慧하야
여러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而於諸佛所에
큰 제자로 있을 때에도	現居弟子上호대
많이 들어 지혜가 있었으며,	多聞有智慧하며

8-8.

법을 설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	所說無所畏하야
중생들 듣는 대로 환희하니	能令衆歡喜호대
피곤함도 권태로움도 일찍이 없어	未曾有疲倦하야
부처님의 하시는 일 잘 도우며,	而以助佛事하며

둘째 주제 : 1천 2백 아라한에게 수기하다 - 모든 비구들 수기를 받다

1) 아라한의 상수 교진여비구, 수기를 받다

그리고는 다른 1천 2백의 아라한들도 수기 받기를 누구나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경전의 구성은 항상 제자들의 마음씀을 부처님께서 미리 아시고는 그에 맞추어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지혜가 밝고 뛰어난 성인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미 읽고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때문에 훌륭한 법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의 유희나 임기응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고 나서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성불이란 법의 즐거움과 선정의 기쁨으로 음식의 맛에는 관심조차 없는 정도의 뛰어난 수행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한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이백의 제자에게 수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교진여 비구에게 수기가 내려집니다. 교진여 비구가 누구입니까? 세존께서 성불하신 직후 다섯 비구를 상대로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아라한이 된 분이십니다. 경문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8-9.

“그 때 1천 2백의 마음이 자유로운 아라한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지금 일찍이 없었던 기쁨을 얻었도다. 만일 세존께서 다른 큰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수기를 하시면 얼마나 기쁘겠는가!」하였다. 이 때 부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1천 2백의 아라한들에게 지금 내 앞에서 아닛타라삼약삼보디의 수기를 차례대로 주리라. 이 가운데 있는 내 큰 제자 교진여 비구는 6만 2천억의 많은 부처님을 공양한 뒤에 부처를 이룰지니, 그 이름은 보명普明 여래 응공 정변지 불세존이리라. 또 5백의 아라한도 반드시 아닛타라삼약삼보디를 모두 얻으리니 그 이름 또한 모두 보명이리라.」

『화엄경』의 십지 수행에서도 ‘큰 법사의 지위[大法師位]’에 해당하는 제9 선혜지善慧地가 제6 현전지現前地와 제7 원행지遠行地, 제8 부동지不動地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연후에 자리한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 아닐까?

2) 5백 아라한도 모두 보명普明여래라 하리라

이어서 모든 비구에게 차례로 수기 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8-10.

이와 같이 점차로 수기하거늘	轉次而授記호대
내가 장차 멸도 후에는	我滅度之後에
누구든 반드시 성불하리니	某甲當作佛이라하야
그 부처님 교화하는 여러 세계도	其所化世間이
오늘날 내가 사는 이 세상처럼	亦如我今日이니
국토는 엄정하게 다스려지네,	國土之嚴淨이라

8-11.

가섭아, 네가 아는 5백의 아라한이나	迦葉汝已知 五百自在者와
다른 성문의 여러 대중도	餘諸聲聞衆도
이 곳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亦當復如是니
앞에서 내가 말한 모든 일들을	其不在此會하나는
네가 그들에게 선설하야라.	汝當爲宣說하라

그리고는 수기 받은 5백의 아라한들이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신앙고백을 토로합니다.

8-12.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책하여 말하였다.『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였나이다. 저희들도 구경의 열반을 얻었노라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 무지한 일이었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얻어야 할 것은 여래의 지혜이었거늘, 다만 작은 지혜를 얻고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 所以者何오 我等이 應得如來智慧어늘 而便自以小智爲足이니다]

법설이 끝나고 비유품에서 상수제자 사리불에게 처음으로 수기를 하시더니, 이제 인연설주에서 첫 번째 아라한인 교진여 비구에게 수기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수기를 하신다는 증거이니, 실제로 경문에서는 오백 아라한에게 한꺼번에 교진여비구와 같은 ‘보명여래普明如來’라는 명호로 수기하십니다. 이를 이른바 ‘동명동호의 수기’라 부릅니다. 위 계송에서 보듯이 모든 비구들은 누구든 성불할 것이고, 지금 참석치 못한 이들은 세존을 대신해서 마하가섭에게 수기를 부탁까지 하고 계십니다.

셋째 주제 : 옷 속 보배의 비유[衣裏繫珠喻]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그대로 부처

이어서 이런 상황을 오백 아라한들이 ‘옷 속 보배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문을 보십시오.

8-13.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아가 술이 만취되어 누웠는데, 그 때 그 집 친구는 관청의 일로 집을 나가면서 값도 모를 보배 구슬을 그의 옷 속에 넣어두고 갔지만, 술이 취한 친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잠을 깨어 일어나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이르렀나이다. 그 곳에서 의식을 찾느라 매우 많은 고생을 하면

서, 조금만 소득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나이다. 그 후 얼마가 지난 뒤에 친구가 그를 만나보고 말을 하되, 「졸장부야, 의식 때문에 꼭 구차하게 사는구나! 내가 옛날 너로 하여금 안락하고 5욕에 즐기도록 어느 해 어느 날 네가 찾아 왔을 때, 값도 모를 보배 구슬을 너의 옷 속에 넣어 주었으니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는 그것도 모르고 의식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고 번뇌하며 구차하게 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위의 비유는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그대로 부처임을 알 수 있듯이, 지혜롭게 산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일에 묻혀서 행복할 겨를도 없이 어느 날 병마에 시달리다 갑자기 돌연사하는 현대인들처럼 행복하기 위해 일을 하는 건지 돈만 벌면 행복해진다고 착각하고 사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라 생각합니다. 10겁 동안을 도를 닦은 대통지승불도 바로 이런 경우였다는 암시이겠지요. 부처님이라고 특별한 어른이 아니십니다. 성불하기 전은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하던 중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불하신 그 분께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공덕을 쌓고 작은 즐거움이나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한 인내력과 끈기로 일 관했던 것입니다.

8-14.

옷 속에 넣어 준 그 많은 보배	不覺內衣裏에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	有無價寶珠러니
보배 구슬 주었던 그 친구가	與珠之親友가
빈궁한 친구를 후에 만나서,	後見此貧人하고

8-15.

몹시 책망하고 충고도 하며	苦切責之已에
매어준 구슬을 보여 주거늘	示以所繫珠어늘
가난한 그 친구 그것을 보고	貧人見此珠하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더라.	其心大歡喜라

이번 품에서는 먼저 부처님이 모든 비구들에게 똑같이 수기 주시는 모습을 보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어서 옷 속에 큰 보배를 갖고 있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해서 구차하게 사는 중생의 병통을 옷 속 보배의 비유를 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잘못된 생각만 바꾸면 본래 부처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덕의 향



나의 헌신과 사랑이
다양한 사람들의 삶 위에서
희망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저 또한 그때까지 고해의 바다에 머물러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게 하소서.

못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이익을 위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고
육바라미를 통하여
보리행을 실천하게 하소서.

- 능행스님의 글 중에서



2018년 11월 ~ 2019년 2월까지 200만원 이상의 기부

(주)지아이에프 님 / 박이성 님 / 김계수 님 / 김정옥 님
대전관음회 님 / 덕문스님 / 사복석 님 / 임규희 님 / 혜공스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귀한 마음을 내어 주셨습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

2018년 11월 ~ 2019년 2월까지 신규 동참자 목록입니다. (가나다순)

정도가족

_2018년 11월

김선아	김철관(영)	남미자	박해중	배호연
서봉숙	심현우	양윤실	우춘지	이진열
일영스님	임인선	임재찬	전용문	정윤수
정치연				

_2018년 12월

강의식	김말남	김종욱	김태욱	보원스님
서민영	성순득	성안스님	이병춘	이아람
이정화	이필림	장수인	장옥희	진이자
차화연				

_2019년 1월

김영수	김점곤	이정수	정재하	
-----	-----	-----	-----	--

이순녀	임성숙	임숙옥	임희숙	장만덕
장미애	장정애	주은정	허나애	허다교
허주형	홍복희			

_2019년 1월

강민성	강선미	강수연	강영숙	강종득
고영숙	곽경섭	곽정임	김경자	김동국
김명순	김명희	김문선	김미화	김소희
김영숙	김영자	김완옥	김유신	김유진
김은진	김일식	김정순	김정윤	김종규
김향자	김현동	김현아	노경화	노성옥
능행스님	류청열	문두경	문소윤	박가을
박미자	박비송	박애자	박윤경	박은정
박재옥	박정애	박정희	박찬옥	백영숙
백준성	변경애	서남숙	서미경	성지윤
손명일	송성진	송지은	송춘자	신순애
안성빈	안준석	양매자	오숙조	오주철
우일숙	윤성현	윤정민	윤창빈	윤한용
윤혜주	이경순	이경희	이남춘	이덕례
이미숙	이소선	이연숙	이주연	이주호
이지영	이하림	일인스님	장옥화	장재철
장창규	전영자	정덕규	정미정	정삼진
정영임	조아연	조영의	조현화	지안스님
차달남	최숙진	최승녀	최연심	최원권
최원철	최 춘	팽순자	하정미	한길범
한길우	한환희주	허수정	허수호	허윤영
허은실	허혜숙	혜진스님	황영주	

정토마을 국경 없는 민들레 후원

_2018년 11월

강미원	강승수	강옥순	권영수	김광대
김미숙	김미자	김민경	김삼연	김영자
김원기	김인자	김정희	김준혁	김현백
노경숙	류향숙	문순민	문지영	문지홍
문창용	박미옥	박상철	박영이	박영희
박치훈	배명희	설재현	신영호	여옥순
염도윤	염동화	염희준	오갑심	오정림
유경자	윤영애	이윤희	이정훈	이준규
이준성	이채빈	이춘애	이현숙	임동균
전경희	전영수	전현숙	조옥수	조윤진
조현숙	지이솔	지종우	지춘식	진하량
허경태	허성수	허윤숙		

_2018년 12월

김가현	김말남	김무현	김병훈	김석년
김소연	김순옥	김승기	김영옥	김은아
김제비	김종권	김형진	김홍희	김효선
문정순	박순희	박정임	박종눈	박현숙
손채훈	양윤순	우성임	유예주	유옥순
유옥연	윤지영	윤황주	이미경	이성만

_2019년 2월

김근완	김성일	김송애	김영범	김준석
김천수	김희승	박건희	박명숙	박윤순
법지사	양미혜	유정애	이서목	이은이
임남숙	임정숙	장정숙	전용숙	

108 병상

_2018년 11월

김성언	김영순(영)	김영중	유길찬	이영은
-----	--------	-----	-----	-----

_2018년 12월

김진선 김청수(영) 이미정

_2019년 1월

김태동 부인순 진원스님

_2019년 2월

박혜연 전현수 정환명

병원 건립

_2019년 1월

안혜경 이승현

_2019년 2월

해공스님

일시 후원

_2018년 11월

대전관음회 박광민 박병찬 박해순 오정희
익 명

_2018년 12월

강병철 김상인 김창현 덕문스님 도재금
박용일 박행신 삼보사신도 엄주미 원종사승복
유로흠 이기영 이병식 이승오

_2019년 1월

고상혜 김나정 능행스님 다너바요가 박종일
서진스님 신점숙 양영석 우룡스님 이경민
이정호 이형준 익 명 일감스님 장지연

_2019년 2월

김수연 신현옥 신환숙 유옥순 최종길

의약품

_2018년 11월

강경구 강경숙 강대구 강옥희 권순선
권태영 김계수 김동구 김미수 김봉선
김성례 김순자(영) 김장호 도원스님 류혜숙

효진스님 민경진 민소윤 박갑년 서밖힘
석영태 석일스님 심선희
안정순 양순연 연화회 유승녀 윤석순
이광렬 이숙선 이영순 이영우 이예훈
이옥선 이익권 이정수 이조이(영) 이혜경
이미정 임영희 장호수 정용주 정은희
정춘애 최금자 최혜연(영) 최홍열 카 야
허미성 허우성 화정스님

_2018년 12월

안미선

_2019년 2월

남선희 수환스님

법화경 법보시 동참

안정순 윤춘자 정오삼 조혜정 문수선원
불교신행연구원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

2018년 11월 ~ 2019년 2월까지 신규 동참자 목록입니다. (가나다순)

땅 1평

_2018년 11월

강창모	김가순	김복희	김봉선	김정태
김지우	김현민	심형준	안근호	안상민
안상현	이선미	이조이(영)	이지영	정수민
정찬주	형빈	형태이	혜경스님	

_2018년 12월

정복희

_2019년 1월

김상원 박종진

_2019년 2월

김태형

법당 불사

_2018년 11월

강미소	강상모	김순자(영)	안혁목	이노갑
정호스님				

_2018년 12월

김부혜(영)	김영희(영)	류춘병	이승오	이익권
이혜경	최원옥			

_2019년 1월

김병갑	김수연	이상부	익 명	종성스님
-----	-----	-----	-----	------

_2019년 2월

고승덕	곽이성	김분필	배지애	서인선
손영란	손영아	안호신	익 명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2018년 11월 ~ 2019년 2월까지 신규 동참자 목록입니다. (가나다순)

_2018년 11월

47기연지회	김양희	김영미	김혜정	남정애
노기동	대구공덕회	도활스님	서춘선	엄상철
우경희	윤문사	울산사회복지공동기금	윤상석	
울산선우회	윤휘찬	이상필	전연자	정계자
정승규	조명희	조정민	최정석	혜덕스님
홍경자				

_2018년 12월

강윤지	권미정	기술보증기금	김선희	김영정
김재손	김희정	남정이	노기동	박덕승
박영희	박윤례	범민스님	보일스님	양순연
양순이	엄윤철	오상석	울산선우회	이정자
임경연	임규희	자인스님	청주정토회	혜덕스님
홍등행	황호월			

_2019년 1월

강상호	고심정사	권혁남	김덕광	김명경
김성국	김성길(영)	김성숙	김수연	김인대
김재손	김재출	남호진	노기동	노영숙

문경미	밀양정미소	박기연	박주영	서희숙
신동희	신복출	신원식	양순이	울산선우회
이경진	이말순	이말순	이수연	이영애
이옥연	이은이	이현지	익 명	임규희
임선주	임순범	임옥이	자인스님	장명자
전광수	최혜선	한경옥	현목스님	혜원스님

_2019년 2월

고정자	김명경	김문환	김성길(영)	김순열
김제준	김태련	노기동	사복석	상호스님
서인선	서준스님	서창교	신정숙	심현규
연호스님	오지연	울산선우회	이난정	이말순
이은이	일명보살	임영희	정념회	정재원
최완식	현불회	혜덕스님	홍경자	황경태

청주 정토마을

강점자	고병탁	김병갑(보인)	김순식	김재손
김희자	대등명	법연화	신병량	엄수현
염옥순	유진원	이영애	이진희	임재범
전명숙				

기도에 동참해 주신 분들

2018년 11월 ~ 2019년 2월까지 신규 동참자 목록입니다. (가나다순)

호마 기도

_2018년 12월

강은정	강인식	구원조	권순선	길길순
김경옥	김대희	김덕광	김도연	김명경
김명선	김명화	김무순	김미경	김선아
김성례	김수현	김신하	김영숙	김영심
김영정	김완옥	김인곤	김정순	김정호
김종혁	김진길	김진욱	김진홍	김현아
김효선	김희영	김희정	나덕형	남궁은숙
남순정	노영숙	능행스님	능호스님	도우스님
류춘병	명철스님	문쌍부	문채경	민경태
박달연	박동춘	박영희	박윤경	박윤례
박인숙	백승순	백정희	서미경	선길모
손삼경	수환스님	신무연	안영자	안태완
안해숙	여덕자	여호준	영운스님	오명균
위진숙	유준택	유현주	이덕렬	이명자
이순자	이연진	이은연	이은정	이익권
이재웅	이재윤	이정례	이창호	이춘우
이혁호	이혜경	이혜림	임경연	임규희
임선주	임영희	임옥이	임정임	장광대
장윤정	정명화	정유연	정장화	정재원
정찬영	조민경	조연화	조유경	조윤석
진이자	최경미	최완식	최원옥	최임득
최현우	최혜선	최화선	하경화	하명숙
한환희주	황경태	황금란	황범주	황선영
황수경				

김태련	김태은	김현아	김화옥	김 훈
김희정	남궁은숙	남순정	노승숙	문쌍부
민대식	박가울	박근태	박동춘	박수훈
박윤례	박혜림	박혜진	백승순	백정희
법왕사	변강임	서미경	서용스님	서춘복
손삼경	신동희	신승애	안해숙	엄윤철
여덕자	여영수	여호준	오상식	오흥만
원유진	유옥재	이말용	이상백	이승우
이승중	이영근	이은연	이재웅	이재윤
이종남	이종철	이주현	이해일	이희정
임경연	임규희	임명숙	임선주	임옥이
임정임	장광대	정명화	정선옥	정연화계
정영철	정원선	정유연	정익규	정장화
진말숙	최봉희	최완식	최임득	최혜선
최화선	하경화	한환희주	해광스님	황금란
황범주	황효순			

제 9차 법화경 장좌기도 설판

_2019년 1월

구원조	김옥량	김정옥	김태련	김태은
김혜옥	능행스님	도우스님	박옥돌	박정국
박찬익	사복석	손관현	손명국	송상훈
이경완	이남이	이상필	이재원	이주현
임경연	임규희	임영희	임정임	정명화
정정화	조진영	허준열	혜원스님	

동지 기도

_2018년 12월

강경숙	강승범	강은정	강인식	강정득
강지모	경덕스님	공화숙	권순선	김경남
김경옥	김광휘	김다운	김도균	김동구
김두희	김명선	김병소	김선아	김성례
김수연	김순수	김용수	김용준	김은구
김정호	김종진	김종혁	김진미	김진홍

장좌기도 동참자

_2019년 1월

강경숙	강민정	강상렬	강상호	강석진
강신권	강은정	강점자	강정수	경덕스님
고병탁	고애준	고윤옥	고정석	곽미경
권민지	권태영	권태우	김경남	김경옥
김계숙	김광휘	김규식	김기백	김대식
김덕광	김동구	김동렬	김명선	김무순

김무용	김미경	김민수	김민옥	김병갑	이화목	임선주	임순범	임옥이	임운혁
김복래	김부래	김서현	김선아	김성례	자인스님	장광대	장은숙	장재성	장점속
김성자	김수연	김숙경	김순득	김순래	장필순	장현정	전광수	전명희	전영태
김순식	김양선	김영구	김영임	김영정	전용문	전환스님	정갑수	정명용	정문경
김영희	김용수	김용애	김월남	김윤주	정선옥	정순옥	정신호	정연화계	정옥란
김윤희	김의순	김인곤	김인례	김일식	정용식	정원선	정유연	정은우	정장화
김재손	김재현	김점란	김정복	김정순	정정숙	정찬구	정찬영	정천옥	정환석
김정희	김종권	김종규	김종선	김종숙	조권재	조삼재	조선용	조선희	조재범
김진길	김춘옥	김충례	김향자	김현아	조한행	주여옥	지안스님	진경혜	차동근
김현지	김혜진	김화옥	김효년	김효진	차영희	차예주	최봉희	최숙희	최양순
김희자	김희정	남궁은숙	남 철	남호진	최영석	최우열	최원옥	최윤호	최윤교
노성옥	노인자	노태식	대각스님	도활스님	최인정	최임득	최재혁	최현근	최화선
류춘병	류현덕	목경대	문쌍부	문연희	하경화	한순옥	한용환	한현아	한화인
문영조	민경옥	민대식	민승기	박나원	한환희주	해광스님	해연스님	홍경자	홍등행
박두익	박무익	박무진	박민재	박세정	황금란	황다원	황범주	황상진	황선희
박수훈	박승준	박윤경	박은영	박임숙	황수경	황효순			
박재국	박태용	박현정	박훈희	배건혜					
백문환	백승순	백정근	범해스님	사명교					
사복석	사윤경	상호스님	서길자	서울디자인					
서인선	서희숙	서희자	선길모	손도익					
손삼경	손서영	송금자	송기옥	송두섭	강경숙	강승범	강지모	경덕스님	고윤옥
송미자	송봉관	송 숙	송영림	송지환	권순선	김분필	김선행심	김성례	김정숙
수환스님	신동희	신민규	신상준	신화정	김진숙	김태련	김현아	능행스님	류경숙
안미숙	안상오	안영선	안영자	안중금	목경대	박선영	박세정	박현정	서태숙
안해숙	양은순	양홍수	양희철	여덕자	수환스님	스타국제물류(주)	심성애	여호준	이도엽
여지모	여호준	연임덕	염옥순	옥숙자	이도윤	이말순	이미화	이연근	이영숙
우명선	원복수	원부연	원용스님	유순도	이제니	이창호	이현지	임영희	장명자
유옥재	유주희	유현웅	윤석환	윤정길	정연화계	정영철	조진영	최임득	최혜선
윤정숙	이경락	이금순	이덕렬	이덕순	티벳스님	하경화			
이도윤	이동식	이돌이	이말순	이명자					
이문선	이문자	이미화	이봉자	이상백					
이상부	이선명	이성자	이순복	이연화					
이영애	이윤숙	이은숙	이은연	이은이					
이재웅	이정주	이종남	이준룡	이준희					
이지희	이진숙	이진원	이채구	이춘애					
이춘우	이해일	이향림	이현자	이현지					

장작기도 공양금

_2019년 1월

강경숙	강승범	강지모	경덕스님	고윤옥
권순선	김분필	김선행심	김성례	김정숙
김진숙	김태련	김현아	능행스님	류경숙
목경대	박선영	박세정	박현정	서태숙
수환스님	스타국제물류(주)	심성애	여호준	이도엽
이도윤	이말순	이미화	이연근	이영숙
이제니	이창호	이현지	임영희	장명자
정연화계	정영철	조진영	최임득	최혜선
티벳스님	하경화			



정토마을이 질병의 고통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부로 함께 해주시는
정토마을 후원가족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마음

사월 바람이 꽃잎들을 모아
메마른 땅 위에 주단을 깔아 줍니다.
사람들이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꽃을 피워낸 나무들에게도
꽃잎을 모아 꽃길을 만들어주는 바람에게도
정토마을이 질병에 관련되어진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마음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님께도
한없는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토마을과 함께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늘 지지 않을 민들레 빛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물이 되어 당신의 사랑을 품고 걸림 없이
아픈 사람들 가슴속으로 흘러가겠습니다.

_기해년 사월 좋은날 능행 지심 합장

정토마을과 동행의 길

정토마을은

붓다의 가르침을 토대로 공존을 통해, 함께하는 공생의 삶에
 질적 향상을 꿈꾸며 좀 더 아름다운 생과 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연을 통하여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동참하겠습니다.

■ 정토마을의 후원과 불사에 동참하시면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구분	후원(동참)금	계좌번호	비고
진신사리 보궁 및 삼천불전 건립 불사	10만원이상 일반동참	농협 351-0487-2570-73(일시불) 예금주: 정토마을 국민 701401-01-202462(CMS)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분납 가능
삼천불 조성 불사	주불- 5백만원 이상 삼존불-2천만원 원불- 108만원		
땅 1 평 공양 불사	30만원		
간월보궁 천일기도	매월 5만원	농협 351-1069-8274-83 예금주: 정토마을	
의료봉사 의약품후원	10만원 이상	농협 355-0057-1787-53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108병상 후원 (자재병원증축)	108만원 (분납/일시불)	농협 815039-55-00318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36/20/10회 분납가능
민들레후원	매월 1만원 이상	농협 401131-51-080245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전화 : 052)255-8588 , 010-2926-8500 자원개발실

JUNGTOH NEWS

JUNGTOH GROUP

법화경 독송 21일 장작기도

2019년 1월 30일 입재한 장작기도가 2월 19일 대보름날 동해 바닷가에서 방생을 하면서 여법한 회향을 하였습니다. 이번 기도는 접수자가 1,000여명에 달했고 전국에 계시는 후원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갖가지 공양물 덕에 성황리에 봉행할 수 있었습니다.

20여분의 스님들께서 밤낮으로 내 가족의 안녕과 선망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니 생각만해도 감사한 일이며 이런 기도가 9년 동안 이어오는 정토마을과 인연을 맺으신 분들의 무량한 공덕은 찬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도 라다크 의료봉사 사전답사

지구촌에 마지막으로 남은 순수의 땅, 라다크 정토마을에서 올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의료봉사를 할 곳이다. 답사 팀은 원장스님과 통역역할의 발덴스님, 김현아 자원개발실 팀장, 법인사무국 송인영 님으로 구성이 되었다. 의료봉사에 앞서 몇 달 전부터 다양한 사전준비에 들어가는데 실제 현장을 찾아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모습 등을 세심히 관찰하고 파악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질병이 많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우리 일행은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물품과 약품을 준비할 것이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의료봉사가 원만회향을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라다크, 그곳은 인간이 사는 땅이 아니었다.

신의 땅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다. 이런 곳에도 우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니...

그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우리 일행은 많은 현실을 보고 느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많다는 사실도 알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국경없는 만들레가 되어 라다크로 날아 가야합니다.



재)정토사관자재회 소속_ 정토마을 국제의료 실천분야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 __질병의 고통에서 희망을 주는 일, 우리가 합니다.”



나는 어디로 날아가 꽃을 피울 홀씨일까요?



영성 : 민들레(꽃말? 행복)

대상 : 지구가족(동남아시아중심) 자연재해, 오지마을, 망명구역, 질병재해, 소외계층

역할 : 민들레꽃을 피우고 홀씨가 되어주는 사람

- 사업** :
1. 정토마을 민들레 진료소 지어주기
 2. 연 1회 이상 해외의료봉사실천
 3. 오지마을 어린이 부모형제 만들어주기
 4. 정토마을 민들레 진료소 운영지원
 5. 보건위생교육
 6. 질병예방교육

비전 : 오지마을 진료환경구축/질병예방/질병치료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사명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가족들에게 희망의 웃음이다.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는 많이 피면 필수록 어둠에 밝은 빛이다.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홀씨는 차별과 분별 그리고 이기심을 떠난 걸림없는 자애와 연민을 키워낸다.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가 되어 일체생명들과 함께 공존과 균형을 이루어가며 깨어있는 삶을 만들어간다.

민들레 접수 및 문의 : 052)255-8588, 010-2926-8500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는

수많은 민들레 흙씨들을 만들어 차별 없는 평등심으로 현대문명의 불모지이며 현대의학이 닿을 수 없는 해외 산간오지의 지역주민들을 위해 진료소 건립, 의료봉사 및 질병 예방교육 등의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제의료봉사입니다.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는

국제의료봉사를 통하여 불교의 자비가 생명으로 피어나기를 발원하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삶에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모금사업입니다. 현대의학의 부재로 인간의 생명이 질병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을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가 하겠습니다.

나눔동참

농협 401131-51-080245
국민은행 713701-01-001909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해외송금계좌
Kookmin bank seoul korea
713701-01-001909(jungtosagwan-jajaehoe)

접수방법

전화 052-255-8588, 010-2926-8500
팩스 052-254-2347
홈페이지 www.jungtoh.org
방문접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아정길
216-39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의료봉사 및 성지순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항공사나 정토마을의 사정으로 일정은 약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관리를 위해서 미리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봉사

| 2019년 7월 8일 ~ 7월 17일(인도 라다크 의료봉사)
| 2019년 11월 11일 ~ 11월 19일(스리랑카 의료봉사)

성지순례

| 2020년 3월 13일 ~ 3월 22일(돈황 실�크로드)

의료봉사 및 성지순례 문의 : 052-255-8586, 8588 법인사무국 자원개발실

북인도 라다크 의료봉사 사전답사를 다녀와서...

시린 계절이 아무리 머물고 싶어 해도
계절의 순환에 손들고 떠나듯,
여기저기 색색의 꽃들이 마음에 혼풍을 불어 넣습니다.
정토마을 가족과 민들레 후원가족 모두의 가정에
봄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_송인영



세계평화를 위하여 오체투지를 하며 기도하는 일행을 만나 발원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드렸습니다.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스님께서 라다크의 수행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교를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높은 고도와 추위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약간의 설레임 속에 불편함 없는 본진 의료봉사를 위한 답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서 인도 행 비행기에 올랐다. 십여 시간의 비행에 이어 국내선 라다크 행으로 갈아타고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시선을 창 밖으로 향하니 온통 설국이다.

매스컴에서만 보던 히말라야 그대로의 모습이다.

영토의 대부분이 해발 3,500이상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북인도 라다크 지방은 인도에 병합되기 전까진 티벳의 영토였기에 인도의 어느 한 지방이라기 보다는 티벳 본고장에 와 있는 느낌을 다분히 받았다. 주민들의 사는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의 70년대와 비슷해 보였으나 해발이 높고 대부분이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일년 중 7개월이 겨울로 그 기간 동안은 항공을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이 두절되는 지역이어서 다소 한가롭기까지 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이나 부가 아닌 마음으로부터 받는 위안, 즉 정해진 기준이 아닌 자신의 잣대로 바라보는 세상이 가장 행복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여 일정을 시작했다. 처처 부처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건 위대한 종교의 힘이였다. 온통 희디 흰 양털 솜을 뒤덮고 있는 히말라야산맥의 웅장함 언저리엔 험한 고행을 일상으로 삼고 사는 지역민들의 삶에 적지만 힘이 되어드리고 주민들은 물론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시는 스님들께도 잠시나마 건강을 챙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우리의 이런 자그마한 봉사가 우리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은 물론 생각이 건강해진다는 진실이 우리 가슴속에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생각한다.

라다크 의료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됨은 물론 현지에서 오로지 봉사정신 하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초겔스님을 통해 진정한 자비심과 봉사를 보았으며 불심으로 이루어진 삶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사람존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의료현실은 말 그대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병원의 숫자도 열악하지만 1년에 7개월 정도가 눈 덮인 겨울인 관계로 이동이 힘들며 거주지가 밀집하지 않고 산개해있어서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였다.

주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그나마 기본적인 의료가 유지되는 듯 보였으나 여타 지역은 교통이나 이동거리를 감안하고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생각하면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였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토마을의 국제의료봉사가 라다크의 낙후된 의료환경과 진료당사자는 물론 의료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보게 된다.

일정은 7월 8일부터 9박 10일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며 그 기간은 라다크 지방의 여름절기에 해당되어 그나마 일년 중 가장 생활이 활기찬 시기라고 한다.

의료봉사를 진행하면서 현지주민 및 진료환자에게 전할 수 있는 정토마을 가족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을 기다리며 정토마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끝으로 마무리가 아름다운 의료봉사가 되기를 처처에 늘 같이 계시는 부처님께 기도한다.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살아야 하나보다’

라는 어느 시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시 한 줄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은 다 세상이구나 라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했으며 늘 자신만의 잣대로 정한 이상을 추구하는 우리네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행복의 기준을 새롭게 각인한 답사였습니다.

라다크 의료봉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후원 받습니다!

구충제 약 3천 개
6개월분량 결핵약 1명분x100명 이상
그 외 소염진통제, 항생제, 위장약, 종합영양제,
관절 및 근육통약, 칼슘제, 고혈압약, 인공누액, 안약,
피부질환연고, 혈액순환제, 파스 및 안티푸라민, 간장약,
오메가3, 어린이종합비타민
선글라스, 장갑, 모자, 양말, 겨울점퍼, 넥워머 등

봉사일정 2019년 7월 8일~7월 17일 (9박 10일)

입금계좌 농협 355-0057-1787-53 (재)정토사관자재회

문의 및 접수 052-255-8588, 8586 정토마을 자원개발실

(담당자: 010-3879-7953 자원개발실 팀장 평등각)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지병이 있으신 분은
11월 스리랑카 의료봉사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간월보궁 및 삼천불 공경전 건립불사에 동참하기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정토에 나투신 것은 희유하고도 희유한 일이며 환희 용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평화와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를 스리랑카대통령께서 정토마을에 기증해 주셨을 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가능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번 21일 정초 장작기도 중에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사리를 보내시어 이운을 하였습니다. 이 어찌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천 년을 이어갈 가람불사가 기공식을 마치고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법당은 물질주의와 관능주의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정신문화의 소생에도 상당한 부분 기여할 것이며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불심이 견고한 신도발굴에도 큰 몫을 할 것 입니다. 인류정신사에 최대의 보고가 될 불사에 저는 의무이자 부처님의 자식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보궁불사 설판자와 공경전 삼천불전에 원불을 모시는 동참자의 이름과 발원을 전산화하고 복장에 모셔 그 공덕을 기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흥포하는 불사에 참여하여 이름을 남기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동참계좌 농협 351-0487-2570-73(정토마을)
접수방법 전화. 052-255-8588,8586 팩스. 052-254-2347
방문.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법인사무국 홈페이지. www.jungtoh.org

우리가족 다 함께 부처님 모시기

소원성취 가족원불

원불은 개인의 소원을 담아 법당에 모시는 부처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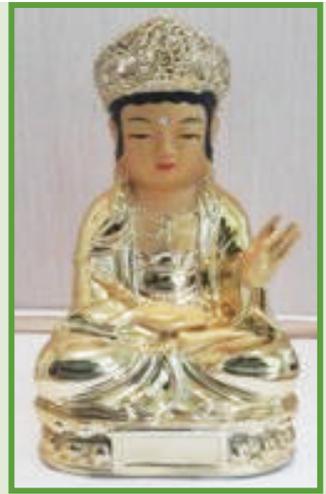
원불 부처님을 모시는 불사에 가족, 친구, 지인들과 동참하여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섭시다.



무지하고 어리석어 고통 받는
너와 내가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하며
지장보살님을
원불로 모시겠습니다.



범람하는 난치성 질병 더 이상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약사여래를
원불로 모시겠습니다.



욕망과 이기심으로 폐허가 되어
가는 나의 가슴에 자비심으로
숲을 만들기를 발원하며
관세음보살님을
원불로 모시겠습니다.

불사모연 안내

주 불	아미타불 500만원이상(1인)
삼존불	2,000만원(가족)
원 불	관세음보살 108만원
	지장보살 108만원
	약사여래불 108만원
땅 1평 공양불사	1평 30만원
보궁 불사 일반동참	10만원이상

■ 법당불사 동참은 형편에 맞게 분납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0487-2570-73(정도마을)
모연문의 : 052-255-8588, 8586(화주:평등각)

108병상 기부동참하기

“108병상 기부금”은

2016년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이 국회를 통과면서

호스피스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적합한 병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정토마을은 20년간 실천해온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실현하고자합니다.

108병상 기부금은 치매전문병동, 외상병동, 중환자병동,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등으로 전문화하고
개별화된 시스템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병상모연에 당신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동참계좌 농협 815039-55-003185 (재)정토사관자재회

접수방법 전화. 052-255-8588 팩스. 052-254-2347

방문.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법인사무국 홈페이지. www.jungtoh.org

간월보궁 천일기도 봉행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정토마을에 모시고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화현으로 중생의 고통과 업장을 소멸시키고
선근공덕을 증장시키는 자비와 위신력을 청하는 법화경 기도정진에 초대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매 순간 불은 가득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입재·회향 : 개인별 매월 음력 15일 보름법회
기도 동참금 : 매월 5만원 36회 CMS접수
입금계좌 : 351-1069-8274-83 정토마을
촛불동참 : 별도 월 3만원

내가 함께하고 싶은 기도



캠틀린포체 관음관정 가피특별기도 안내

관정수기 : 2019년 5월 16일 저녁 7시
기도 동참비 : 5만원
기도장소 : 정토마을 대법당
접수문의 : 052-255-8588 법인사무국 자원개발실

백중(우란분절)기도 49재 안내

“선망부모와 법계의 유주무주 고훨 영가를 천도하는 백중기도 49재”
백중기도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등 효심이 지극한 목련존자의 신통력과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육도윤회의 중생을 고통에서 해탈시켜 불교의 5대 명절로 전해진 날입니다. 불제자들의 수행력과 효심으로 금생에 가피를 청합니다.

입재 : 2019년 6월 29일(양) 오전 10시
회향 : 2019년 8월 15일(양) 오전 10시
동참금 : 영가1위 5만원
접수문의 : 052-255-8588 법인사무국 자원개발실

간월보궁 천일기도접수 안내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정토마을에 모시고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화현으로 중생의 고통과 업장을 소멸시키고 선근공덕을 증장시키는 자비와 위신력을 청하는 법화경 기도정진에 초대하오니 수의 동참하시어 매 순간 불은 가득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입재·회향 : 개인별 매월 음력 15일 보름법회
기도 동참금 : 매월 5만원 36회 CMS접수
입금계좌 : 351-1069-8274-83 정토마을
촛불동참 : 별도 월 3만원

캄 툴 린 포 체 관 음 관 정 가 피 특 별 기 도 안 내



인도 따시종 까꾸파 제 9대 법왕 '캄톨린포체'

과거 생애 출가 수행자로 수행에 전념하시다가 환생하여 생불로 화현하심이 증명된 린포체님께 관세음 관정을 받고 관음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티칭)은 참으로 희유하고도 길상한 일이다.

'관정'이란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의 종지를 관세음(본존불)의 가피를 통해 들어나게 하는 여법한 의식으로 티베트에서는 불교를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입문과 같다.

관정은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린포체, 즉 환생한 큰스님만이 내릴 수 있다 범회를 앞두고 환희심과 설렘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정도이다.

문의 : 052-255-8588, 010-2926-8500 자원개발실



청주 정토마을

CHEONGJU JUNGTOH

꽃 피어나는 봄 -
 청주 정토마을에서 봄 바람과 함께
 소식들이 날아왔어요.



“청주 정토마을 텃밭 수확”



“오늘은 메주 만드는 날”



청주 염불禪 수행



아미타불은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오랫동안 수행한 결과
그 원을 성취하여
10겁 전에 부처님이 되어
현재 극락세계에 머물고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 : 무량수(無量壽) 무량광(無量光) 아미타불 또는 무량수불

우리가 다음에 갈 여행지... 극락세계!

무량한 복덕이 아니고서는 부처님을 만날 수 없듯이 그곳에 확실한 인과 연을 만들어 극락왕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 안에서 기쁨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으로 이 몸을 벗어나는 그때에 자연스러운 벗어남을 통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위 없는 깨달음과 수행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아미타불 염불선 수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000

수행일정 및 장소

일 시 : 매월 셋째주(금) PM 7시부터 - (일) PM 1시 2박3일

동참비 : 50,000원

동참계좌 : 농협 351-0352-4390-73(정토마을)

동참문의 : 043-298-2258, 010-7305-4935(무량지)

장 소 : 청주 정토마을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전날 입소 가능 하며 숙박 하실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방사배정으로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능행스님

능행스님과 SNS 친구해요!



“
능행스님과
SNS 친구하는
방법
”

정토마을에 계신 능행스님을
후원자님의 집에서
SNS로 만나뵐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능행스님과
소통도 하고, 능행스님의
좋은 글귀도 매일 받아
보실 수 있는

SNS친구맺기!

오늘부터 같이 해 보실래요?



정토마을
능행스님검색
플러스친구추가



화면상단검색
능행스님검색
친구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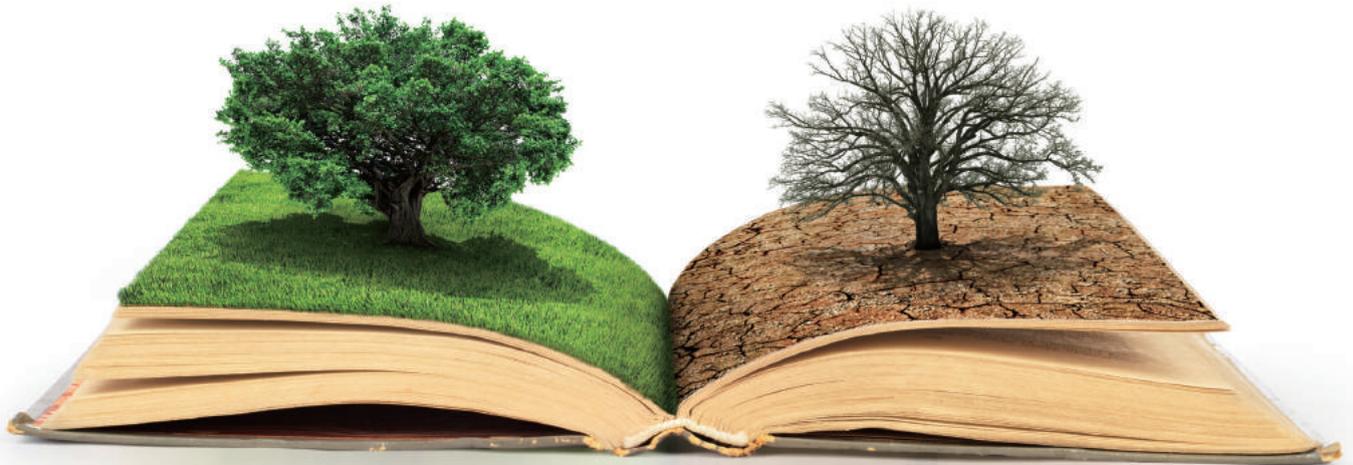
카페 검색
정토마을가입



화면상단검색
능행스님검색
능행스님의 소품 접속
밴드가입

since 1993

49th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생사의 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사를 인생이라는 한 선에 놓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 속에서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게 되는 영성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 2019년 8월 17일(토) ~ 8월 22일(목) 5박 6일 / 연 2회

교육대상 : 사부대중

교육정원 : 40명(선착순)

교육비 : 80만원 (학인스님 20% 감면)

농협 351-0587-2656-13 마하보디교육원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증명사진 1매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온라인접수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010-8848-8522

mahabodhi@daum.net www.mahaedu.org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교육원

주관·주최 :



마하보디교육원
Mahabodhi Education Center

주최 : K B H A

Korea Buddhist Hospice Association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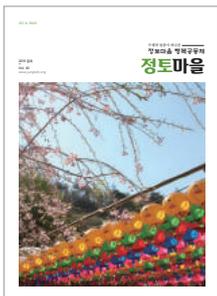


정토마을 약사여래불

정토마을

2019 봄호 + Vol. 40

비매품



발행처 (재)정토사관자재회
 발행일 2019년 4월 30일
 편집인 능행
 등록 울산바01004(2008.4.11)
 편집위원 장광대 김현아 김건형
 사진 편집부
 디자인 이노디자인 T. 02.834.2213
 제작 (재)정토사관자재회

울산 정토마을 T. 052.255.858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청주 정토마을 T. 043.298.225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마하보디교육원 T. 052.255.85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 본 인쇄물은 석보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재)정토사관자재회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jungtooh